

<2016년 10월 12일 수요일말씀>

생각을 잘해라. 기억해야 기쁘다

본 문 마태복음 6장 21절

『<네 보물 있는 그 곳>에는 ‘네 마음’도 있느니라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‘기억해야 기쁘다. 잊어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.’

라는 주제로 <기억>에 대해 말씀해 줬습니다.

<주일말씀 핵심 내용>

◆ 어느 날 ‘기쁨’이 사라져 사라졌습니다.

그러다 지난날이 <기억>나니, 다시 ‘기쁨’이 왔습니다.

이때 ‘기억’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.

‘기억해야 기쁘구나! 잊어서 기쁘지 않구나!’ 깨달았습니다.

◆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

기억할 것을 꼭 ‘기억’해야 ‘기쁨’도 있습니다.

<생각>에서 잊으면 - 기쁘다가도 바로 ‘기쁨’ 이 사라지고,
다시 <기억>하면 - ‘기쁨’ 이 일어납니다.

◆ 기억하면

마음 그릇에 ‘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물건이 담긴 것’ 과 같아서
<기뻐할 것>이 있지만,

기억을 안 하고 잊으면

마음 그릇이 ‘비어 있는 것’ 과 같아서 <기뻐할 것>도 없습니다.

◆ 왜 기쁘다 하지 않을까요?

기뻐할 것들이 ‘기억’ 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

하나님도, 성령님도, 성자 주도, 영원한 것도, 휴거의 기쁨도
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기만 하고 섭리를 뛰기만 하니,
기쁨이 없고 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.

◆ 성령님은 <기억>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<하나님이 주신 것들>이 엄청나게 많다.

그런데 다 잊어버려서 ‘기쁨’ 까지 사라진 것이다.

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, ‘이미 준 것’ 을 기억해라.

네 기억에서 ‘지난날의 무엇’ 을 잊었는지, 찾아라!

<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의 사연들>을 잊지 말아라.

기억나면, 다시 기쁨이 오고,

희망의 바람이 불고, 희망의 흰 구름이 밀려온다.

기억해야 기쁘다. ‘기쁨’ 이 온다.

잊어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 말씀>과,
<삼위일체가 주를 통해 해 주신 것>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.

그리고 기억만 하지 말고, 날마다 기뻐하며 행해야 됩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◎ 사람은 <생각>으로 모든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.

고로 <생각과 기억>은 ‘정신적인 생명’이며
인간이 살아가는 데 ‘기본’ 이라고 했습니다.

- ◎ 오늘도 <생각과 기억>에 대해서 ‘잠언’ 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주일에 해 준 말씀도 기억하면서 듣고,
새롭게 해 주는 말씀도 잘 새기면서 듣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먼저 <생각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생각>은 마치
공중에 떠 있는 풍선이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날아가듯,
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간다.

- ◆ <생각>을 가만히 놔두면
공상, 명상, 망상, 몽상, 가상, 상상 등 각종 생각으로

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된다.

- ◆ <생각>만 ‘ 좋게 ’ 해도 그 영향을 받아 기쁘고,
<생각>만 ‘ 나쁘게 ’ 해도 그 영향을 받아 화도 나고 분노도 한다.

- ◆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<가상의 생각>만 해도
뇌도 생각도 몸도 느끼고,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.

- ◆ 평소에 ‘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 ’ 이나 ‘ 자기 원수 ’ 가
자기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해를 준다는 생각을 해 보아라.

<생각>만으로도 <뇌>가 그 영향을 받아서
화가 나고 분노하는 느낌을 받는다.

<생각>이 ‘ 실상 ’ 같이 느껴진다.
생각만 했는데도 ‘ 행한 것 ’ 같이 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.

- ◆ 반면 평소에 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’ 을 떠올리며,
그 사람과 함께하는 좋은 생각을 해 보아라.

<생각>만으로도 <뇌>가 영향을 받아서
실제로 기쁨을 얻게 된다.

- ◆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,
<뇌>가 그 영향을 받아서 기분도 좋고 기쁘게 행하게 된다.

- ◆ 가령 앞날이 좋게 되겠다고 생각하면,
실제로 마음과 생각이 기쁘다.

뇌세포를 보면, 뇌가 정말 기쁨을 느끼고 있다.

- ◆ <생각>이 자기에게 ‘신경성 병’도 주고,
<생각>이 자기에게 ‘건강과 기쁨’도 준다.

- ◆ <생각>에 ‘잡념’과 ‘판생각’이 들어올 때는
<주>를 수십 번 부르고 <성령>을 수십 번 불러라.

그러면 바로! ‘잡념과 판생각’에서 벗어나게 되고,
<자기가 본래 생각한 쪽>으로 생각이 집중된다.

- ◆ <자기 생각>을 확실히 운전해라!
차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 나듯이,
<생각 운전>을 잘못하면 사고 난다.

- ◆ <생각>을 나쁘게 하면, 신경성 병이 생겨서 ‘뇌’가 망가진다.

- ◆ 사람을 자꾸 나쁘게 보고 부정하고 악평해 버릇하면,
다른 것들도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고 행한다.

결국 ‘뇌, 마음, 생각이 망가진 자’가 된다.

- ◆ 스스로 생각하면 잘못된다.
누가 ‘중심’을 잡아 줄 수가 없다.

전능하신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’으로
<중심>을 잡고 생각해라.

그러면 뇌도, 마음도, 생각도, 혼도, 영도, 육도 망하지 않는다.

- ◆ **늘 부정적으로 보고 불만을 갖는 자는**

이미 <뇌>가 ‘부정적’으로 굳어 버렸기에
<좋은 것>이 와도 못 받아들이고 소화를 못 시킨다.

반면 <불만, 불평, 부정적인 것들>은
마치 쓰레기통이 쓰레기를 받아들이듯 쪽쪽 받아들인다.

◆ <생각>을 잘해야 된다.

자꾸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면, 뇌가 그렇게 굳어 버린다.
그것이 <자기>에게 큰 영향을 준다.

◆ <생각>이 자기를 ‘ 좋게 ’ 만들기도 하고 ‘ 나쁘게 ’ 만들기도 한다.

◆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,
결국 ‘신경성 노이로제’에 걸린다.

고로 아무 일도 없는데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
쓸데없이 자꾸 불안하고 걱정만 하게 된다.

모두 <잘못된 생각> 때문이다.

◆ 왜 그리 악하게 생각하고,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,
늘 불평불만 하며 남 탓만 하며 신세 한탄만 하느냐.

<그 생각>이 ‘너의 뇌와 마음과 생각’을 병들게 했다.

<그 생각>이 네 인생과 영원한 영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라.

◆ <네 생각>에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’가 거하도록 매일 불러라.
삼위와 주와 생각이 일체 되면 ‘안 좋은 생각’에서 벗어난다.

◆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‘성공률’ 이 높다.

긍정적으로 생각하면 <뇌와 생각>이 그리로 돌아가고,
그 영향을 받아서 희망으로 행하게 된다.

고로 성공률이 높다.

◆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며 안 된다고만 하고 안 하니,
될 것도 안 된다.

◆ 하면 된다. 고로 일단 부정을 하면서도 해 보아라.

가령 “나는 절대 수영을 못 한다.” 부정하면서,
한 달, 두 달 동안 수영을 배워 보라.

정말 안 되는지 보아라.

◆ <생각의 부정>은 ‘실제로 행하는 것’ 보다 약하다.

고로 <생각>으로는 부정해도 <실제>로 행해 보라.

그러나! <생각>으로도 긍정하면서 <실제>로 행하면, 훨씬 더 잘된다.

◆ <생각>을 잘해야 더 잘된다.

<생각>을 잘못하고 행하면

- 자기 자체로도 잘 안 되고,
- 하나님도 법으로 규정지어 막으신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해 주고,

이어서 <기억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<이 사람>도 ‘저 사람’ 같이 하면, 할 수 있다.

다만 사람만 다를 뿐이다.

- ◆ 가령 ‘한 여자’가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다녔다 하자.

<자기>도 그런 옷을 사 입고 예쁘게 꾸미면,
그 여자와 똑같이 할 수 있다.

- ◆ “하면, 나도 다 한다!” 생각하고 행해라.

전에는 안 됐지만, 지금은 전보다 성장했기에 된다.

- ◆ <못 가진 자>라도 ‘더 잘하니’ 잘되고,

<더 가진 자>라도 ‘보통’으로 하니 잘 안 된다.

더 가지고서도 더 잘 안 하면,

못 가지고 더 잘하는 자보다 안 되는 것이다.

- ◆ <시대 말씀을 더 갖고 있는 자들>이

<못 갖고 있는 기성>보다 잘 안 되는 이유는

그들보다 더 잘하지 않기 때문이다.

- ◆ <자기 실제 모습>은 멋진데, 사진을 그냥 대충 찍으면 별로다.

<실제 모습>이 별로인데, 사진을 멋있게 잘 찍으면 멋있게 보인다.
고로 운명이 뒤집어진다.

- ◆ 똑같은 지역, 똑같은 나무인데

<잘 찍은 자>는 ‘작품’으로 남겼고,

〈못 찍은 자〉는 ‘별로’로 남겼다.

- ◆ 〈잘하는 자〉는 못 갖췄어도 성공하고,
〈못 하는 자〉는 더 갖췄어도 성공을 못 한다.
- ◆ 〈실력〉이 있어도 잘해야 성공한다.
〈실력〉이 없어도 잘하는 자는 성공한다. 깨달아라!

<전환>

◎ 이제 〈생각과 기억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고, 마치겠습니다.
주일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잊으면, 한 세월도 순간 간다.
- ◆ 생각에서 잊으면, 시간이 흘러가도 모른다.
- ◆ 〈산 시간〉은 ‘생각하는 시간’ 이고,
〈죽은 시간〉은 ‘잊은 시간’ 이다.
- ◆ 삼위와 주와 교통하는 자라도 ‘끊어졌을 때’가 있다.
곧 ‘잊고 사는 시간’ 이다.
- ◆ 〈전기선〉이 〈전기〉와 끊어지면, 즉시 불이 들어오지 않듯이,
〈삼위와 주와 교통하는 자〉라도 순간 잊고 살면,
즉시 ‘삼위와 주와의 교통’ 이 끊어진다.
- ◆ 사랑하는 자와 같이 살아도 〈생각〉에서 잊고 있으면,

그것이 바로 ‘교통이 끊어진 것’이다.

그로 인해 ‘사랑하는 자로부터 오는 기쁨’도 사라진다.

◆ 기뻐할 것들을 생각에서 잊으면, 기쁨도 사라진다.

◆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>도
기억하고 행할 때는 기쁘고 즐겁다.

그러다 그 기억이 사라지면, 동시에 기쁨도 희망도 사라진다.

◆ <뇌와 생각>에서 잊으면, ‘빈 머리’ 뿐이다.

◆ 잊어버리면,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니 ‘해골’ 뿐이다.

◆ 생각과 기억에서 잊으면,
마치 ‘자기 큰 보물’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
그로 인한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.

◆ <영원한 휴거>보다 더 이상의 큰 축복은 없다.

그러나 <휴거의 가치>를 잊으면,
그로 인한 기쁨까지 사라지게 된다.

그로 인해 ‘육’도 그것을 느끼고 곤고해한다.

<생각과 기억>은 ‘생명’이고 ‘기본’이다.

◆ <잊었던 생각과 기억>이 떠오르면,
마치 해가 뜨듯 ‘기쁨과 흥분과 희망’도 떠오른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,
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,
하나님과 주가 해 주신 것을,
삼위와 주가 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,
영원한 것과 휴거의 기쁨과 천국 황금성을
잊지 말고 늘 생각하고 기억해라.

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행해라.

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뛰기만 하니,
기쁨이 없고 희망도 사라지는 것이다.

<영에 속한 것들>은 눈으로 안 보이니,
기억을 안 하면 아예 잊게 된다.

- ◆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, 기뻐하며 행하기다.
영원한 것을 기억하고, 아예 잊지 않도록 자기를 온전히 만들기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